

안녕하세요 더운 날씨를 더욱 덥게 만드는 주범인 수험생 여러분.
공부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이 제 연구실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드는 듯 합니다. :)

오늘은 **무죄추정의 원칙**에 대해 좀 이야기 해볼게요.
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말 자체는 굳이 정법을 공부하지 않아도, 많이 들어들 봤을텐데요.

아래의 이야기는 꼭 정법을 수강하는 학생이 아니어도 읽어두면 좋은 내용이니 '비문학 법지문'이라 생각하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군요 :)

오늘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 한 명이 질문을 하였습니다.
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왔는데요.

저는 이 질문을 받고서 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공부방법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.

제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.

우리 헌법은 제 27조 제 4항에서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.

그럼 해당 조문에서 요건사실을 볼까요
첫 번째 요건사실은 바로 **'형사피고인'**입니다.
즉 검사의 기소에 의해 공판에 회부 된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피고인을 의미하죠.
(수사를 받는 형사피의자는 당.연.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겠죠 :))

다음 요건사실은 **'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'** 입니다.
우리 헌법은 재판청구권과 관련하여 **3심제**를 보장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상고까지 하는 경우를 상정 한다면 유죄판결의 확정은 법률심인 대법원의 최종선고시에 확정이 될 수 있
죠.

그러나 피고인과 공판검사가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실심인 1심과 2심에서도 확정될 수 있습니다.

일선의 강사님들 중에서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가르치고 있지
만, 엄밀히 이야기 하면 올바른 표현은 아닌 것이죠 :(

사안에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후 피고인은 무죄 취지의 항소를, 검사는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를 제기할
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아직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죠.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서 피고인은 상고제기 기간인 7일
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.

형사소송법 제374조(상고기간)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.

다음은 조문의 취지검토입니다.

이건 실무적 실익이라고 해야겠죠.

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 및 교정 실무의 실익은 무엇일까요?

무죄추정이 되는 구속 피고인은 비록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**미결수**입니다. 그래서 **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서 미결수로 구금**되죠 (예 남부구치소) 그래서 정역에 복무하지 않습니다.

만약 위 사안에서 피고인과 공판검사 양 당사자가 상고제기기간인 **7일 이내에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 유죄(예 징역 1년 6월)이 확정된다면 무죄추정원칙이 더 이상 적용 되지 않으므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**되고 구치소가 아닌 **교도소(예 남부교도소)로 이감**이 되죠.

그럼 여기서 질문.

그동안 구속기간은 어떻게 될까요? 네 당연히 **미결구금일수는 본형에 산입**됩니다.

만약 1심에서 6월, 2심에서 2월의 구속 상태였다면 잔여형기는 10개월이 되겠죠. (18개월-8개월=10개월)

정법은 과목 특성상 **사회평균인의 생활법률 수준에서의 지식**만을 요구합니다.

따라서 개괄적으로 내용을 다루다 보니 이해의 흐름 상에서 **공백**이 많아지고

당연히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게 마련이죠.

이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암기가 되다 보니

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.

강사의 역할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**법조 실무와 연계하여 조문의 요건사실 그리고**

실무를 통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여 자연스러운 암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.

사법고시를 합격한 대상자들의 실무 연수기관인 사법연수원에서

사법연수생들에게 요건사실론과 형사 실무론을 나누어 강의를 진행합니다.

모든 법학의 기초는 바로 법조문의 **1) 요건사실에 대한 분석이 선행**된

이후 **2) 실무적 이해가 뒷받침**되어야 한다는 것이죠.

누구보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전달할 수 있는 리갈 마인드 랩스가

여러분들의 이해 흐름상의 공백을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“이해를 통한 암기” 리갈 마인드 랩스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합니다.

정법 선택자 수가 '묻고, 더불어 되는' 그 날까지.

2020 리갈 마인드 랩스 드림.